

# 인내심의 자각,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해

마시멜로 이야기 의 사회적, 시대적 의미

글\_ 천대윤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책의 저자인 포사다(de Posada)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나 근면성 때문이 아니라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즉 눈앞의 작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먼 장래의 더 큰 만족을 맛보기 위해 현재의 욕구충족을 억제하고 연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으로 포사다가 제시한 것은 1960년대 심리학자 미첼(Walter Mitchell)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위 “마시멜로 실험”이다. 이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어린이들에게 한 개의 달콤한 마시멜로 젤리가 주어지고 만약 20분 정도 후에 연구자가 돌아왔을 때 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 인내한 어린이는 또 한 개의 마시멜로를 더 받게 된다. 어떤 어린이들은 참지 못하고 연구자가 실험실을 나가자마자 냉큼 손으로 집어서 먹어치웠고, 어떤 어린이들은 그러한 유혹을 참기 위해서, 또 한 개의 보상(마시멜로)을 더 받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앉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참아냈다. 이들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추적하여 조사해보았는데 그 당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낸 어린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던 어린이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1960년대 실험내용을 이 책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조나단(Jonathan)과 조나단을 모시는 운전기사인 아서(Arthur: 역서에서는 찰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서는 지적능력으로는 조나단보다 뛰

어나나 마시멜로를 즉석에서 먹어버리는 성격, 즉 참을성과 자제력이 약하고 소비지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조나단의 운전기사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조나단은 참을성과 자제력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책 저자 포사다가 전하고자 하는 참을성, 자제력, 저축 등과 같은 메시지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러한 참을성, 자제력, 저축에 관한 말씀들은 어릴때부터 몸에 배도록 듣고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한국적 문화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소비성향이 강한 미국 청소년이나 라틴아메리카 계통의 청소년에게 자제력과 저축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기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에서 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잘 알려졌다는 소식을 접하니 납득이 잘 가질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스피드사회에서 참을성이 점차로 약해져가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참을성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동기부여의 역할에 일조할 것 같다. 또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다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는 잘못됨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단기성과에 급급하여 장기성과를 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경영자들에게 자신들의 경영 방식을 한번쯤 돌아보게 하는데 기여할 것 같다. **한**

⇒ 그렇다면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적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책의 키워드는 여느 처세술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과 ‘행복’이다. 또한 성공 신화의 밑바탕에 ‘인내’와 ‘꿈’과 ‘실천’이 있었다는 새로운 것 없는 결론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평범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힐 수 있었을까? 그것은 독자들이 성공한 사람들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의 권위에 위임(commitment)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이 그것이다. 그 결과 “내 생각이 맞긴 맞았구나. 그런데 나는 실천을 못했던 거로구나!” 하는 각성과 투사(投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방법적·기술적 처세와는 다른, 매우 근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보편적 공감에 있다. 저자는 누누이 “성공하는 사람은 늘 소수”(6쪽)라고 말한다. 독자들은 그 소수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이처럼 ‘인내’, ‘꿈’, ‘실천’이 주어지고 있으니, 그 평범함과 보편성에 독자들은 안도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다.

아마도 더 복잡하고도 어려운 각론적 처방이 제시되었다면 독자들은 불편해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책을 외면했을 것이다.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성공’과 ‘행복’을 향할 수 있다는 보편적 자기 개발의 서사는,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